

광주비엔날레 이 작품 놓치지 마세요



도라 가르시아가 1980년대 독서점을 재현한 '독서점-산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마리아 린드 총감독이 추천한 작품 10선

2일 '2016 광주비엔날레'가 막을 올린다. 올해 비엔날레는 예술을 통해 환경·노동·인권·권력·정치·사회 등 동시대 현안을 짚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마리아 린드 총감독이 추천하는 작품 10선을 소개한다.

■ 이정민 '문득' 등 회화시리즈

2009년 '용산사건'을 작품에 담았던 작가는 도시 풍경에 사회성을 가미한다. 사회 문제를 독창적인 동양화 기법으로 묘사하면서 은유적이고 사색적인 감성을 선보인다. 최근 연작인 '산책-형태'는 서울에서 경험한 도시 산책을 반영해 만든 작품이다. 전형적인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벽이나 포장된 도로, 돌무더기, 나무 등의 클로즈업들로 구성됐다.

■ 줄리아 사리세티아티 '인도 K-노동'

자카르타 예술 집단인 '루앙루파' 줄리아 사리세티아티는 도시의 공동체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연구해왔다. 두차례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80%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 커뮤니티센터와 함께 비디오 공유 플랫폼을 만들었다. 전 세계적인 노동 인구 이주에 대한 이슈와 함께 사람들의 행동에 예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색한다.

■ 아폴로니아 슈스테르쉬치 '도시계획, 두암동'

시각예술작가이자 건축가인 작가는 두암2동 누리봄 커뮤니티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도심의 녹색 공간과 이를 둘러싼 지역 민주주의의 의미를 탐구한다. 주민 참여 과정을 영상으로 담은 지역 공동체 협업 예술 프로젝트 '도시계획, 두암동' 작품을 전시한다. 또 영화 상영, 토론회,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타일러 코번 '인체공학의 미래'

상상 속의 미래 인류를 위해 디자인된 인체 공학적인 가구 시리즈 작품이다. 광주에서 머물며 관람객들이 실제로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제작했다. 미래학과와 인류학자 등과 만나 인체의 변화를 연구했으며, 미래의 인간이 사용할 의자를 예측해서 구현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고 성찰한다.

■ 구닐라 클링버그 '고요함이 쌓이면 움직임이 생긴다'

스웨덴 출신 작가는 동양의 영적 탐구와 현대 소비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 풍수지리와 오행사상에서 영감을 받아 다수 작품을 의재미술관에 설치했다. 의재미술관 유리창에는 비닐을 오려내 만든 달의 주기 문양을 한 작품을 부착했고 중앙 복도에는 대나무 커튼을 배치했다.

■ 크리스토퍼 콜렌란 토마스 '뉴 일람'

'뉴일람'은 신설 벤처 기업 형태를 띤 장기 예술 프로젝트이다. 어떻게 기업이 국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어떻게 브랜드가 예술가와 소통할 수 있을지 영상·모형하우스·인테리어 등을 통해 표현한다.

■ 더그 애쉬포드 '한국 민주주의 내개의 예시들'

뉴욕에서 활동하는 더그 애쉬포드는 정치와 미학을 접목해 예술적 철학을 담은 사진을 선보인다. 더그 애쉬포드는 1980년부터 '뉴욕타임스'를 스크랩해왔으며 2016년 5월 광주와 서울을 방문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의 장소, 수감되고 사망했던 장소 등을 탐구하는 과정을 영글에 담았다.

■ 아르제니 질리아제브 '인류의 요람'

우주로 흩어진 인간의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어둡고 광활한 우주 이미지를 벽에 건다. 삼각형으로 이뤄진 불규칙한 황금빛 구를 표현한 '인류의 요람' 시리즈는 상상의 미술관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 시나리오에 의하면 미래 인간은 우주에 살게 되며 오직 미술관이나 기록관을 방문할 때에만 지구를 찾게 된다.

■ 도라 가르시아 '독서점-산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

1977년 계림동에 처음 문을 열었던 독서점은 36년 전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격문과 투사회보 등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곳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당시 서점에 있었던 서적들을 볼 수 있고 판매됐거나 주요 토론 도서목록을 만날 수 있다.

■ 정은영 '정동의 막'

2013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수상했던 작가는 전시, 영화제, 공연과 같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한다. '정동의 막'은 어느 젊은 여성 국극 배우가 장면에 짜인 신호에 따라 서로 호흡을 맞추는 연습 장면, 공연에 이르기까지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준비과정들을 조명한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통념화된 여성의 성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다.

■ 코퍼라티바 크라터 인베르티도 '야요치나파 대학살 사건의 살아있는 시체들'

멕시코시티 예술가 집단인 '코퍼라티바 크라터 인베르티도'는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의 정치·사회를 탐구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가상 이미지를 소개한다. 동물 형상이 중첩된 얼굴, 흐물거리는 신체, 무작위적인 요소들이 덧붙여진 오브제를 보여준다.



타일러 코번 작가 작품 '인체공학의 미래'와 벽에 걸린 이정민 작가 '문득' 시리즈.

“현대미술은 사회 이해하는 매개...예술의 역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린드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현대미술은 가장 의미있는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술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미술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죠.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예술이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일 마리아 린드 '2016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은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주제를 설명하며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는 전시 주제나 제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십년간 예술은 인프라, 행사 여건, 작가, 환경 등 외부적 요인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패러다임도 변해 펀딩, 예산 등 자본에 집중하는 경향도 있었죠.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환경과 인프라뿐 아니라 예술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작품과 작가, 시민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설명에 마리아 린드 감독은 설치된 작품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차재민 작가와 광주 출신 박인선 작가 작품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차재민 작가는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하는 근로자

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현대인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물리적인 노동이 밑받침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작품이죠. 박인선 작가는 도시 발전 모습을 담았어요. 저도 광주를 방문하며 건물이 완성되고 철거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박 작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도시를 디스토피아적 시각에서 잡아냈어요. 이런 작품을 통해 예술이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작가들을 초청해 광주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월레호, 인프라스쿨 등 매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마리아 린드 감독은 “과거 비엔날레가 전시에 집중된 일회성 행사였다면 올해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며 “예술은 서로간의 연결점을 만들어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경기자 kimhy@kwangju.co.kr

서거 400주년...광주에서 만나는 셰익스피어

‘맥베스’ ‘오텔로’ 등 오페라 컬렉션



광주시오페라단 5~6월

빛고을시민문화관 4편 공연

올해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그의 작품은 정통적인 연극 뿐 아니라 오페라, 영화 등 수많은 예술 장르의 원천이 됐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된 수많은 작품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광주시오페라단은 오는 5~6월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셰익스피어 원작 오페라 컬렉션'을 공연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대본으로 한 오페라는 무려 80여편에 이를 만큼 작곡가들의 영감을 자극했다. 이번에 공연되는 작품은 헨델의 '줄리어스 시저',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베르디의 '맥베스'와 '오텔로' 등 모두 4편이다.

이번 공연은 정식 오페라 무대는 아니지만 성악, 무대, 조명, 의상, 분장 등이 함께 하는 갈라 형식으로 진행된다.

5월에는 국내 초연되는 '줄리어스 시저'와 베르디의 '맥베스' 삼일곡을 만날 수 있다.

'줄리어스 시저'에서는 시저 역의 김기우, 클레오파트라 역의 이승희씨를 비롯해 조효중, 전진, 나향수씨 등이 출연하며 첼리스트 장우리, 피아니스트 김연·송지영씨와 호신콘서트피아이어가 함께한다.

'맥베스'에는 맥베드 역의 이형기, 레이디 맥베스 역의 이완희씨를 비롯해 김일동, 김흥태, 박지현씨가 함께한다.

6일 공연되는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이현, 윤승환씨가 연인 역으로 출연하며 김홍석, 박순영, 권현, 임리라씨가 무대에 선다. 마지막 작품인 '오텔로'에는 주인공 역의 윤병길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데스데모나 역의 박현주, 김제선, 홍유리씨가 등이 무대에 선다.

박수길씨가 총감독, 이범로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서울 예술음악무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대, 스텝을 공유한 작품으로 서울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651-340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913 송정역시장의 '로미오와 줄리엣'

9·10일 광산문화회관

극단 '까치놀'...티켓 1000원

캐플릿가와 문테규가 두 원수 집안의 아들, 딸은 불같은 사랑에 빠지고 아무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한다. 결국 두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가 되며 아픈 사랑이야기를 전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장 많은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이 세기의 로맨스'는 다양한 형식의 작품으로 전 세계에서 공연중이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로미오와 줄리엣'이 새로운 연극으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원작의 배경이 된 이탈리아 베로나 대신, 작품은 광주 1913송정역 시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광산문화회관을 거점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까치놀이' '新 로미오와 줄리엣'을 무대에 올린다. 9일(오후 7시30분), 10일(오후 2시·6시) 광산문화회관.

작품 배경은 요즘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1913송정역 시장이다. 오랫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내온 우리쌀 떡집 김 씨네와 우리밀 빵집 최 씨네의 자녀가 생일파티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라도 사투리와 개성 있는 캐릭터로 정감과 재미를 더한다.



제2회 윤대성 희곡상을 수상한 임은재 작가가 각색했고 극단 까치놀의 상임연출 김영록씨가 연출을 맡았다. 황원, 정현해, 김영환, 이두영, 박은미씨 등 20여명의 단원들이 출연한다.

김영록 상임연출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각색해 이 시대의 사랑과 아픔을 표현했다”며 “1913 송정역에서 펼쳐지는 소소함이 광산구민의 정감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티켓 가격은 광산문화회관이 진행하는 '천원의 행복' 이벤트로 1000원이다. 8일까지 선착순 접수 받는다. 문의 062-960-89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예술은행, 3~4일 명랑대첩 축제장 '찾아가는 경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남도예술은행 찾아가는 게릴라 경매'를 명랑대첩축제 이 열리는 진도 울돌목 앞바다에서 3~4일 이틀 동안 선보인다.

'남도예술은행 찾아가는 게릴라 경매'는 전남지역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작가들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다.

이번 게릴라 경매는 3일 오후 3시에 해남 성문광장 야외마당, 4일 오후 1시30분에 진도대교광장 야외마당에서 두차례 추진하며 지역 전업미술작가들의 한국화, 서양

화, 문인화, 서예 작품 총 40점을 공개한다.

특히 이번 경매에서는 특별할인을 통해 관광객들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작품가격을 평균 20~30만원대로 낮췄으며, 경매에 참여한 관광객 등 방문객들에게는 재단 기념품도 증정한다.

한편 남도예술은행은 전남 거주 전업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됐으며, 지역작가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진도 윤림산방에서 매주 토요일 마다 그림경매(524회 추진)를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1-280-5823. /김미은기자 mekim@

